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22 번외 2편, 지휘에 대하여

글. 김성현 ubc 울산방송 미디어기술국 부장

연재 목차

- 13편. 트롬본
- 14편. 호른
- 15편. 튜바
- 16편. 기타
- 17편. 피아노
- 18편. 파이프 오르간
- 19편. 유율타악기
- 20편. 무율타악기 및 에필로그
- 21편. 번외 1편. 성악
- 22편. 번외 2편. 지휘

지휘Conduct를 들어가며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없다면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다. 악기 연주도 하지 않으면서 제일 앞에 나와 “관객들에겐 단지 등만 보이면서 열심히 팔을 휘젓는 지휘자는 당최 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일어날 것이다. 필자 역시 어렸을 때 TV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서 “지휘자는 멋져 보이려고 서 있는가, 아니면 여러 명이 연주하니까 단순히 박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존재하나?” 등등 별의 별 생각이 떠올랐지만 결국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점차 음악에 대한 지식과 연륜이 깊어지면서 지휘자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지휘자는 배의 선장에 비유할 수 있겠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배가 산으로 갔다’는 표현은 선장의 중요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선장은 직접 배를 조정하지는 않지만 항해사, 조타수, 기관사, 갑판원, 승무원 등 수많은 선원을 관리·감독한다. 2012년 이탈리아 근해에서 승객과 승무원

등 4,200여 명을 태운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콩그라디아호가 좌초되어 수십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승객을 구호해야 할 선장은 어처구니없게도 배를 버리고 도주해버려 지구촌 사람들에게 공분을 산 적이 있다. 현대와 같이 각종 첨단 항해장치를 장착한 거대하고 안전한 선박이라도 선장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16, 17세기에 현대의 최첨단 선박에 비하면 조악하기 그지없는 수준의 돛대와 노를 젓는 범선은 더욱 선장의 존재가 중요할 것이다. 그 옛날에도 악천후를 만나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선장의 기지와 현명한 판단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선원들이 대처해서 안전하게 배를 지켜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오케스트라에서의 훌륭한 리더십의 발휘는 앞서 선장에서 비유했듯이 무척 중요한데 지휘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휘자란 강력한 카리스마와 따뜻한 인자함을 지닌 리더로서 전체 단원들에 대한 무한 신뢰를 주어야 하며 악

곡에 대한 해석과 뛰어난 감각으로 성공적인 연주를 이끌어내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처럼 망하기 일보 직전의 회사를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살려냈듯이 한 기업 대표의 역량에 따라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조직에서 가장 큰 비운은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죽어가는 악단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최상의 악단을 최악으로 내몰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이며 오케스트라의 꽃이라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로봇 지휘자 '유미' / ndtv.com

요즘 AI(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달은 체스와 바둑, 음악 작곡, 악기 연주까지 인간의 영역에 도전해서 꽤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음악의 지휘는 아직도 사람의 영역에 존재한다. 그런데 따뜻한 가슴과 영혼을 지닌 인간이 아닌 차디찬 로봇 '유미_{Yumi}'가 지휘를 한 콘서트가 있었다. 이탈리아 피사의 베르디 극장에서 제1회 국제 로봇 축제 축하공연에서 유미의 지휘 아래 유명한 맹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와 루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협연하였다. 악곡 해석이나 깊은 감동에서 우리나라는 영혼의 몸짓을 감히 로봇이나 AI가 어떻게 표현해낼지는 의문이나 점점 인간의 영역을 잠식해 오는 것은 사실이다. 필자는 현대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성 효율이나 비용 감소 측면에서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로봇이나 AI를 도입하는 추세가 그다지 달갑지는 않다. 게다가 인간만이 가능한 디테일과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예술 영역만큼은 비록 흉내는 낼지언정 그 아름다움을 절대 표현해 내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잘 살려 각자의 영역을 취사선택한다면 인간과 기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휘의 개요

지휘관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지휘자가 다양한 손동작과 얼굴(특히 눈짓을 통해서), 다리, 팔 등의 몸짓을 통해 음악연주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지휘자는 수많은 악기에 대한 지식과 음색, 연주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오케스트라 총보(모든 악기의 악보가 적혀 있는 지휘자만을 위한 악보)를 보고 각 악기 파트에 대한 배치뿐만 아니라 악곡에 대한 분석 능력으로 적절한 시점에서 특정 악기 연주에 대한 지시 혹은 전체 악곡의 셈여림, 빠르기, 분위기, 아티클레이션 등을 조절한다. 지휘자는 연주할 작품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각 악기 분야에서 전문가 그룹인 단원들과의 인간적인 화합과 더불어 음악적으로 설득하여 통일성 있고 조화로우면서 이상적인 연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악보를 철저히 연구하여 작품의 배경과 음악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원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독재자로 군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교류하여야 한다. 그야말로 일인다역을 해내야 하는 어렵고 힘든 자리라서 '마에스트로_{Maestro}'라는 존칭을 하게 되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다.

그만큼 지휘봉의 물리적인 무게는 몇 그램밖에 안 되지만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해야 하는 심리적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일반인들의 경우 악기음이 둘 이상만 되어도 각각의 음색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인데 지휘자는 수십 가지 악기와 수십 명의 연주자를 일일이 듣고 탐색하여 이해해야 하며 그들의 사소한 실수까지도 끄집어내고 수정하여 훌륭한 연주의 결과물을 도출해낸다. 이처럼 지휘자는 음악에 대한 해석과 철학, 화성에 대한 지식, 전반적인 악기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기에 한 분야의 악기에서 오랫동안 걸출한 이력의 연주자이거나 여러 성부의 연주가 가능한 피아노 전공자 혹은 작곡과 출신이 유리하다. 심지어 같은 오케스트라가 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지휘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단적으로 지휘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지휘의 유래를 알아보면 옛날에는 지휘자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오른발로 바닥을 차면서 박자를 맞추었으며 중세에는 선율의 흐름과 느낌에 따라 손과 팔을 이용해 간단하게 지휘하였다. 15~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러 성부로 된 다성음악이 보편화하고 음악적인 표현이 풍부해지면서 지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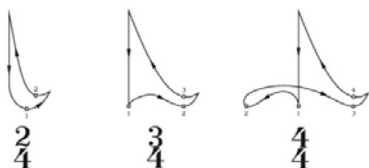
바로크 시대와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면 기악곡이 크게 발전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인기를 얻게 된다. 초기의 오케스트라나 실내악단은 연주 인원이 많지 않았으므로 하프시코드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서 지휘를 하거나, 맨 앞자리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활을 휘두르며 지휘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19세기 낭만주의에 이르러 오케스트라의 규모가 방대해지면서 지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때부터 직업적인 전문 지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전문 음악인으로 서 자리를 잡아 스타들 못지않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휘봉 / amazon.com

지휘자들의 지휘법을 살펴보면 지휘 방식은 저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박자나 템포, 음악에서 강조하거나 악기 연주를 지시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 보통은 지휘자가 오른손에 지휘봉(baton)을 쥐고 지휘한다.

지휘는 음악의 빠르기, 강약, 성부의 균형, 악기들의 강조 등을 조절하는데 오른손은 템포와 박자를 왼손은 오른손의 강조 혹은 연주자에 대한 주의나 강조, 느낌 등을 표현한다. 아래의 예시처럼 박자에 대한 오른손 지휘의 패턴은 있으나 실제 이대로 하지는 않고 줄여서 연주하거나 포인트에서만 표현할 때가 있으며 지휘자에 따라 동작을 크고 격정적으로 하거나 혹은 작고 부드럽게 하는 등 다양하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지휘자별로 지휘하는 방식이 제각기 달라 처음 만난 경우 리허설 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적응하게 된다.

박자에 따른 지휘법
/ music.stackexchange.com

지휘에 관련한 뒷이야기

지휘자와 전공

역시 유명 지휘자는 피아노 전공이 많은데 그 외 악기 연주자도 여럿 있다. 법학과 의학을 전공한 뒤 음악으로 전향한 이색적인 지휘자도 있다.

- ① 피아노 : 카라얀^{Karajan},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바렌보임^{Barenboim}, 정명훈, 볼프강 자발리쉬^{Wolfgang Sawallish}, 브루노 발터^{Bruno Walter}, 조지 셀^{George Szell}
- ② 첼로 : 토스카니니^{Toscanini}, 장한나,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Nikolaus Harnoncourt}
- ③ 바이올린 : 로린 마젤^{Lorin Maazel}, 유진 오먼디^{Eugene Ormandy}, 네빌 마리너^{Neville Marriner}, 테오도르 쿠렌치스^{Teodor Currentzis},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Dudamel}
- ④ 비올라 :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Carlo Maria Giulini}
- ⑤ 파이프 오르간 :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Leopold Stokowski}
- ⑥ 타악기 : 사이먼 래틀^{Simon Rattl}, 파보 예르비^{Paavo Järvi}
- ⑦ 법학 전공 : 카를 뵘^{Karl Böhm}
- ⑧ 의학 전공 : 주빈 메타^{Zubin Mehta}

장 밥티스트 뢰리^{Jean Baptiste Lully}

뢰리는 1632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방앗간을 하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려서 프란체스코 수사들로부터 음악을 배웠으며 이후 피렌체에 사는 프랑스 귀족의 밑에서 음악적 재능과 춤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의 나이 14세에 파리로 가서 음악 공부를 더욱 깊이 하여 기타 및 바이올린 연주에 탁월하였다. 이후 루이 14세와 같이 발레를 추게 되

면서 왕의 눈에 띄게 되는데 결국 궁정악단의 가수 겸 작곡가, 감독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장 밥티스트 뢰리 / operadeparis.fr

뢰리가 활동할 당시 지휘봉은 기타란 쇠막대기였는데 그는 지휘 도중 실수로 엄지발가락을 찌게 되었고

사람들은 다친 부위를 잘라 내려고 하였다. 하지만 발레리노로서 명예를 버린다면 수술을 거부했고 결국 상처가 커져 자기의 실수로 죽음을 맞는 비운의 음악가가 된다.

그의 음악은 힘과 빠른 박자에 의한 생동감, 그리고 슬픔을 나타내는 악장에서는 깊은 감정의 호소로 유명하다. 파리 궁정의 춤의 양식에 급진적 혁명을 가져왔고 당시까지 느리고 위풍당당한 박자 대신 빠른 리듬의 생동감 있는 발레 음악을 소개하였다. 물리에르와의 공동 작업에서 연극, 코미디, 발레가 결합한 코메디 발레라는 새로운 음악 양식도 만들었다. 또한 이탈리아 양식이 프랑스와 맞지 않자 프랑스 서정비극을 만들었고 recitative와 aria를 따로 분리하는 이탈리아 오페라 방법을 버리고, 극적인 효과를 위해 두 개를 합쳐 내용에서 동작을 더 빠르게 해 대중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갔다. 그래서 뮐리를 프랑스 오페라의 창시자로 부른다.

멘델스존 Mendelssohn

독일의 작곡가 멘델스존은 날렵한 지휘봉을 들고 현란한 지휘를 선보이며 당대 최고의 지휘자로 명성을 얻었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으로 활동한 멘델스존은 체계적인 오케스트라 리허설



멘델스존 / geni.com

시스템을 도입한 근대적인 지휘자이기도 하다. 현대의 오케스트라는 멘델스존이 활동하던 19세기 오케스트라보다 그 규모가 더 크고 음악도 복잡해진 만큼 한 오케스트라를 책임지는 상임지휘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쭈시개 지휘자와 맨손 지휘자

대부분의 지휘자들은 지휘봉을 현란하게 흔드는데 여기 맨손과 작디작은 이쭈시개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며 훌륭하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이들이 있다. 이쭈시개를 사용하는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 Valery Gergiev와 맨손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Leopold Stokowski가 그들이다. 특히 스토코프스키는 몇몇 영화에도 출연하였으며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판타지아’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발레리 게르기예프 / artsjourna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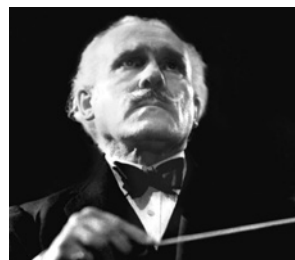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 / wnyc.org

토스카니니 Toscanini와 푸르트벵글러 Furtwängler

1867년 이탈리아의 가난한 재봉사의 아들로 태어나 첼리스트로서의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던 토스카니니는 의도치 않게 극적으로 지휘자가 되었지만 평생을 짧은 피 하나로 공연과 음반 녹음에 대한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오페라하우스에서 오페라 ‘아이다’의 공연 중 평소 악단과의 갈등을 겪던 지휘자가 나가버렸다. 대타로 부지휘자와 합창단 지휘자가 나서 보았지만 역부족이었고 평상시 지독하게 눈이 나빠서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던 첼로 연주자까지 기회가 주어졌다. 관객들의 야유에도 그는 끝까지 지휘를 마치게 되고 이후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다. 토스카니니처럼 운이 좋게도 원래는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대타 지휘자로 나서 전문 지휘자가 된 유진 오먼디도 있다.

토스카니니는 87세에 은퇴할 정도의 열정적인 에너지로 평생을 짧게 살려고 노력했으며 파시스트와 나치에 대해서도 저항했는데 그런 성향이 음악에도 묻어나 열정적이고 다이내믹한 성향을 보였다. 당시 그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일컫는 지휘자가 바로 푸르트벵글러이다. 예술 방면에서 대체로 라이벌은 상반된 출신 배경이나 사상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토스카니니와는 집안 배경과 음악적 사상이 상반된 그는 태생적으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인지 감성적이며 화성적인 음악의 성향을 지녔다.



토스카니니 / parmawelcome.it



푸르트벵글러 / newyorker.com

지휘계의 이단아 테오도르 쿠렌치스 Teodor Currentzis

요즘 TV에서 혁신을 화두로 내세우는 광고가 제법 있는데 테오도르 쿠렌치스가 바로 기존의 격식과 형식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클래식 음악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음악가이다. 그리스 아테네 출신으로 그가 이끄는 뮤직에테르나 musicAeterna와 함께 파격적이고 열정적이며 다이내믹한 공연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다. 지휘편의 서두에서 어떤 조직에서 리더의 중요함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가장 잘 들어맞는 지휘자가 쿠렌치스이다. 그는 러시아의 조그만 도시 페름의 무명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단을 세계적인 인기 물리와 네임 밸류를 갖춘 악단으로 성장시켰다.



테오도르 쿠렌치스 / archyde.com

그들은 일단 된다. 그리고 특이하다. 바이올린, 비올라 같은 현악주자와 금관주자들이 서서 연주하거나 고악기를 연주하는 등 지휘자 자신은 튀는 의상에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퍼포먼스와 맨손으로도 다이내믹한 지휘를 통해 대성공을 이루었다. 이 모든 기획이 쿠렌치스에게서 나왔다고 하니 그는 진정 훌륭한 리더이자 지휘자임이 틀림없다. 정통 클래식 음악가와 애호가들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그의 실험적인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대중음악에 비해 점점 소외되며 위축되고 있는 클래식계에 잔잔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의 파격적 행보를 통한 인기몰이로 많은 팬을 불러들여 다시금 클래식 음악의 중흥을 바란다.

개그맨 김현철의 지휘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변신한 개그맨이 있다. 웬지 개그와 클래식 음악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필자

역시도 개그맨이 지휘를 한다고 하니 일종의 립싱크처럼 지휘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단순히 리듬을 타며 양손을 휘젓는 수준이 아님을 필자만 느낀 걸까? 어쨌든 개그맨이라는 주캐를 접어두고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부캐로 훌륭하게 변신한 사람은 바로 김현철이다.

그의 현란한 손짓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연주되고 블렌딩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되니 정말 놀랍기 그지없다. 가끔 보이는 재미있는 동작이 관객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는 지휘할 때면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비록 악보를 볼 줄 모르지만 곡에 따라서 며칠 혹은 한 달 이상 걸려서 아예 통째로 외워 지휘를 한다고 하니 클래식과 지휘에 대한 그의 열정과 사랑을 알 수 있다. 현재 샤롯데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의 단장과 은평구 국제 청소년 오케스트라 명예 지휘자 그리고 본인이 창단한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김현철 지휘자 / imbc.com

그는 “클래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클래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객분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클래식에 좀 더 친숙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출발해서 드라마와 영화까지 제작된 남녀 음대생의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었으며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에 대한 재미있는 볼거리들이 많다. 남자 주인공은 치아키인데 지휘자를 꿈꾸며, 여자 주인공은 치아키를 짝사랑하는 피아노 전공의 노다 메구미이다. 어릴 때 트라우마로 인해 무서워서 비행기를 못 타는 선배에게 최면을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 amazon.com

걸어 유학의 길을 열어주고 두 남녀는 같이 유학을 떠나 음악과 사랑의 완성을 이룬다는 뮤직 드라마이다.

The Conductor

최초의 여성 지휘자 안토니아 브리코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남성만의 아성이었던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자리까지 오른 여성의 혹독한 시련(심한 남녀차별, 빈부의 격차에 따른 신분, 여성에 대한 편견 등)과 도전기를 다루었다.



영화 The Conductor 포스터 / primevideo.com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꿈인 네덜란드계 이민자 출신의 주인공은 콘서트홀에서 일하며 피아노를 공부하던 중 한 지휘자에게 찾아가 지휘를 가르쳐 달라고 끈질기게 부탁을 하여 제자가 된다. 그런 와중에 부잣집 도련님 프랭크 톰슨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결국 일과 사랑에 대해 갈등하게 된다. 아직도 여성 지휘자가 많지 않고 그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오죽했을까. 진정 본인이 사랑하고 열정을 가진 분야라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맞닥트려도 이겨내고 쟁취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줌과 동시에 자칫 매너리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잃어버린 꿈을 재무장하고 리프레쉬하게 해주는 좋은 영화이다.

다니엘 바렌보임과 자클린의 눈물 Jacqueline's Tears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해 연주를 못 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비운의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 Jacqueline Du Pre의 남편은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로 유명한 다니엘 바렌보임이다. 당시 재능 있는 젊은 두 남녀가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하지만 둘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자클린은 병을 얻게 되지만 바렌보임은 병수발을 커녕 연주여행을 다니면서 다른 여성과 바람까지 피우게 되고 둘은 결별한다.

자클린의 눈물은 오펜바흐 Offenbach의 곡으로 그가 작곡한 지 10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독일의 첼리스트 베르너 토마스가 발견하였고 자클린 뒤 프레를 기리기 위해 이 곡의 제목을 '자클린의 눈물'이라 지었다고 한다.

아내의 병수발을 나 몰라라 했던 바렌보임과는 대조적으로 아내에게 헌신적인 줄리니는 64세에 LA 필하모닉에 음악 감독으로 취임하는데 몇 년 후 그의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병간호를 위해 사임했다.



바렌보임과 자클린 / ft.com

곱슬머리 지휘자 두다멜 Dudamel

음악애호가들에게 두다멜 하면 휘날리는 곱슬머리와 엘 시스템아 El Sistema를 떠올린다. 엘 시스템아는 국가가 지원하는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재단 이름이다. 동명 타이틀의 영화도 제작되었는데 원래 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빈민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침과 동시에 음악 활동을 통한 아이들 보호 기능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클래식 국제무대로 배출된 사람



두다멜 / gramophone.co.uk

이 여러 명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가 바로 두다멜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엘 시스테마에서 무료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고 그의 천재적인 재능으로 인해 나중에는 어린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와 엘 시스테마 전체 음악감독까지 역임하게 된다. 2004년에는 독일에서 열린 구스타프 말러 지휘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며 글로벌 음악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2009년 28세의 어린 나이에 LA필의 최연소 음악감독이 된다.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특유의 친화력과 겸손함으로 훌륭한 통솔력과 리더십을 겸비했다고 한다. 두다멜은 베를린 필의 지휘자인 아바도와 사이먼 래틀의 지지를 받으며 2006년에는 클래식 음반계의 명가 도이치 그라모폰과도 전속 레코딩 계약을 이루어냈다. 테오도르 쿠렌치스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경향이 있으나 그의 지휘는 열정적이면서 화려해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이미 세계적인 지휘자로 자리매김 되었다. 게다가 LA 필에서 존 윌리엄스와의 친분도 쌓게 되어 영화음악 분야에도 진출하였다.

지휘와 관련한 음원들



- 1) ABB's robot YuMi takes center stage in Pisa, conducts Andrea Bocelli and Lucca Symphony Orchestra
- 2) The Conductor
- 3) Jean Baptiste Lully stabs himself in his foot and dies
- from the movie 'Le Roi Danse'
- 4) Valery Gergiev 지휘 - 'Bolero'
- 5) Fantasia 1940 Trailer | Disney | Leopold Stokowski
- 6) Beethoven Symphony No. 5, 1st mvt - Toscanini
- 7) Furtwängler
- 8) Teodor Currentzis - Verdi: Requiem, Dies irae
- 9) 현마에 김현철
- 10) 노다메 칸타빌레 S오케스트라
- 11) 영화 The Conductor | Official Trailer International
- 12) Tchaikovsky : Waltz of the Flowers - Daniel Barenboim
- 13) Jaqueline Du Pre - Jacqueline's Tears (Jacques Offenbach)
- 14) El Sistema - The Promise of Music - Gustavo Dudamel's quotes

이것으로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번외편 마지막 챕터 지휘를 마치게 되었다. 지금까지 '오케스트라 악기와 함께' 마지막 연재로 대망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다. 그동안 원고를 쓰는 데 도움과 조언을 준 아내와 사랑하는 두 딸에게 감사하며 매 연재물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단행본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한다. 📖